부경여대협 1, 2월 사업계획서(초안)

발신 : 10기 부경여대협(준)
수신 : 10기 부경여대협 산하 각 대학 총여학생회

Ⅰ. 들어가며

방학은 우리에게 어떤 시기인가?
문서에 있는 말로 방학의 중요성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가슴 속으로 느껴보자. 간부일꾼들이 방학시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년이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시기에 체계적인 학습과 정연한 조직생활, 활동적인 분위기, 항상 단대와 과를 만나들어가려는 모습이 있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은 1년의 장기적인 흐름과 계획 속에서 많은 성과를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 단위에게 지금의 시기 정말 필요한 계획과, 절실한 목표가 무엇인지 가슴속으로 자각하지 않고는 그 어떤 화려한 계획도 실제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여학생운동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혁신하겠다는 자세와 의지, 각 학교에 맞는 과학적인 계획수립과 실천활동이다.
여전히 총여학생회 조직상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한번에 열악한 조직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여학일꾼들의 끈질김과 열정은 절대로 지쳐서는 안된다.
각 학교마다 이제는 정말 여학우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 소통되고 대중적이며, 내용성있는 운동발전의 요구를 가지고 있다.

<u>여학우 대중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요구에 맞는 새로운 그릇으로</u>
<u>더욱 결심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u>

Ⅱ. 조직사상과제

총여학생회의 단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세우자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 3가지를 중심으로 일꾼들마다 자기목표를 마련하자.
(동아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자기 목표를 잡아서 자보로 써서 벽에 붙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1)조직생활을 내실있게 진행하자!</u>
△조례 ; 너무 무리하게 잡지도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아서 반드시 진행하자.
조례의 내용 -하루의 일정을 공유
-그날 계획을 함께 수립
-신문 브리핑
-명언학습(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늦잠자는 일꾼들을 위해서-- 비상연락망 짜기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늦게 일어나는 동지들을 조례에 꼭 참석할 수 있게 하자)

△종례
종례의 내용-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
- 만났던 대중, 학습에 대한 총화
- 다음날 계획을 공유
- 하루 총화서를 쓰자(동아대 총여의 하루 총화서 별첨)

△총화대회
- 1주일간 우리단위의 조직 생활을 점검
- 자신이 세웠던 3가지 목표를 점검해 보자.
- 콩과 콩깍지를 총여 일꾼들과 진행하자.
- 사랑의 우체통 : 동지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에게 사랑의 쪽지나 작 은 선물을 마련해서 주고받는 방법.
(창원내 총여에서는 이미 편지함을 만들어 놓고 실천하고 있다.)

△회의
- 1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전원회의를 꼭 하자
- 회장님은 그 주의 확대 운영위나, 중앙 운영위의 결정 사항이나 논의 사항을 보고
- 부회장님은 총여학생회 전반에 대한 내용과 방중 목표에 따른 논의를 진행
- 각 국별로 제출되는 안건으로 회의를 반드시 진행
- 회의가 끝난 후에는 집행

<u>2) 학습을 내실있게 진행하자!</u>
학습은 주체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체가 없다면 대표자 분들 중에 한 분이 하는 것도 좋다. 주체는 반드시 학습의 내용을 준비하고, 하기로 한 학습일정은 하늘이 두쪽이 난대도 반드시 진행하자. 주체는 일꾼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꼭 공유하자
여성학 학습과 중앙에서 제출되는 자주적 운동론에 대한 학습을 나누어서 진행하자

△집단학습
-1주일에 2번 정도, 조례가 끝난 후 진행
*여성학---문서로 된 것~~~전여대협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내용
(성매매, 호주제, 성폭력 규제 학칙,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 등등)
----책~~~새 여성학 강의, 섹슈얼리티 강의 등등
----영상~~~최근 나오고 있는 여성 영화
*자주적 운동론(학교중앙에서 제출되는 자체 문서)

△소조학습
- 총여학생회 일꾼 소조는 1주일에 2번 정도(여성학, 운동이론)
- 단위 여학국장들과 함께 하는 소조를 꾸리자.(여학국장들의 수가 많다면 조를 여러개로 나누어서.. 주체는 대표자들이나 일꾼들이 하나씩 맡아서 구성한다.)
수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2주일에 1번정도 비디오를 보기나, 학내 성폭력 사례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학습

△개인학습
-하루동안 했던 학습내용을 종례 때 서로 공유
-읽은 만큼 스티커 붙이기(자보로 가시화하자)
-많이 읽은 일꾼에게는 모범상을 시상하자
-전여대협 홈페이지활용---- 1달에 한번 책을 선정하고, 감상문을 쓰는 난 활용
(1월 전여대협 필독 도서- 20세기 여성사건사)

<u>3) 총여학생회 간부 인선을 빠르게 진행하자!</u>
- 총여학생회 일꾼 공개모집
(부서의 내용을 새내기들의 정서에 맞게 창발적으로 고민하고, 그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연락처 메일과 전화번호를 꼭 남기자.)
- 새내기들을 중심으로 인선하자!
(새내기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이야기만 잘해도 찾아올 것이다.)
- 애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1월 안으로 결합해서 함께 방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인선을 마무리 짓자.

<u>4) 단대 여학주체와 과여부 건설에 매진하자!</u>
- 그냥 단짱, 과짱님과의 술자리에서의 말보다는 형식을 갖춘 간담회를 통한 단대, 과 여학생 주체 건설에 주력하자.
- 확대 운영위나 중앙위원회 때 총여학생회에서 설문조사 사업
(창원대에서 이미 확대 운영위에서 과장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음)
- 과에 어떤 기반도 없다면 일단 먼저 친해지자---인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동아대의 경우 과장들에게 직접 크리스마스, 새해 카드 주기, 단대 운영위때 찾아가서 인사하고 술한잔 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세워진 단대 주체와 과주체 챙기기
(메일과 연락처를 반드시 총화해서 자주자주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단대, 과주체와 함께 1일 여휴 꾸미기등을 제안해보자!)

5) 소모임 사업을 준비하자!

부경지역 총여학생회 중에서는 소모임들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시도되었으나 제대로 운영된 곳이 별로 없다.

- 02년도 총여학생회 소모임 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소모임 운동론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 후, 주체는 누가 하며, 어떤 내용과 활동과 커리의 소모임을 만들 것인지 계획해 보자
- 이후 부경여대협 소모임 주체 회의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보자.

Ⅲ. 대중투쟁과제

(1) 대중투쟁과제의 내용과 방도

①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살인미군 처벌투쟁

이제는 살인미군 처벌투쟁에서 더 높은 수위로 대중을 의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방학시기에 청년학생들이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쟁의 불씨가 사그라들수도 있고, 더 폭발적으로 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총여학생회가 총여학생회 자체의 계획없이 중앙에서 제기되는 일정대로만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살인미군 처벌투쟁에 총여 자체의 계획을 가지고 임하자.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대중 조직 인것만큼 전체 투쟁에서도 따로이 투쟁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총여학생회의 자립 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자

▷방도

-계절학기가 진행될 때까지는 대표자들의 강의실 선전을 실천하자(1일꾼 1강의실 선전전)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총여회장의 연락처와 이메일로 직접 연락을 받을수 있도록 하자.

-수집되어 있는 학우들의 이메일로 정기적인 투쟁속보나 뉴스를 전하자.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대학이라면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개인 목표와, 집단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매일 매일 점검해보자

-의식화 계획을 내어서 의식지점을 상승시키자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투쟁

당면한 북핵문제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제기된 불가침 조약에 대한 학습부터 선행하자. 정세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 보수 언론의 대북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민중들에게 올바른 의식화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별 유인물 뿌리기 운동이 제안되어 있을 것이다.

▷방도

-유인물 뿌리기 운동을 할 때 매일 총여학생회는 몇 부씩의 목표를 정하자.

-하루 1회 한 시간을 단위별 실천 활동 시간으로 정하여 총여학생회 자체적으로 도서관이나 학내거점에 선전물을 전시하고 선무방송을 하자.

②반성폭력 반가부장제 운동

반성폭력 반가부장제 운동은 방학중에 실제로 학우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진행할 것은 많이 있지 않다. 일꾼들의 기본 준비를 다그치는 시기가 되도록 하자.

▷방도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습을 정연하게 진행하자.

-새내기 사업에서 반성폭력 의식화 내용들을 단대별 예비대학 자료집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학교별 일꾼학교나 확대간부수련회 등에서 성폭력의 기본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교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③여성학자사업

여성학자사업은 방학중에 준비를 탄실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시기의 정책과 공약들을 새로이 취합하여 정리하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학교행정과 얘기하고 실제로 공약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기이다.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공약을 실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규제학칙 개정투쟁

학칙개정의 요구가 높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나, 내용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개정의 요구가 다들 있다.

▷방도

-실태조사사업을 진행하자.

지금 시기는 기본적인 자기 대학의 상황들(학칙에 근거된 사항들이 현재 지켜지고 있는지, 학칙에 명시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없다던가)을 구체적으로 총화해야만 한다.

학칙에 교육이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에 교육을 강제해 들어가면서 새내기 교육이나 전체 학생차원에서 교육하는 사업을 총여가 맡아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학칙 개정에 대한 자기 대학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계획을 짜자.

-학교에서 등투를 진행할 때 학칙을 포함시켜서 함께 실천단을 꾸린다거나, 대학측에 학자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낼 때 학칙에 관한 질의서를 함께 보내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보자.

#여교수 채용목표제 도입투쟁

교육부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과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방도

-대학본부에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투쟁을 해보자 (우리대학에는 현재 여교수가 몇 명이며, 전체 비율 중에 몇퍼센트를 차지하며, 여교수 채용목표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국공립대가 아닌 사립대학교도 질의서 발송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싶다.

-방학중이긴 하지만 여교수 채용목표제에 대한 의식화도 학우들에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학강의

-여성학 강의를 개설하려는 대학에서는 학교 본부의 교양과정운영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여성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시키고, 구체적 과정을 밟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여성학이 개설되어 있는데 여성학 강의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조직사업과 강의 향상 사업이 가능하다.

☆모니터링 모범 사례(01년도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목표: 여성학 강의가 좀더 학우들에게 내용성을 전달하고 꼭 필요한 강의가 되게 하자

시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 시기

모집: 주변에 왜 모니터링이 필요한가에 구체적 모집 선전을 진행하고, 강의실에 직접 들어가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합의를 얻어 직접 학우들에게 돌리고 희망학우의 연락처를 직접 받아옴

운영: 3~4명정도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여성학 학습과 수업내용 평가에 대한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후에 교수님을 모셔다가 학생들과 함께 그 강의의 변화발전전망을 제시하는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워크샵은 성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④ 연대사업

겨울 방학은 연대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총여학생회에 연사 주체가 명확하게 서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사업도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방도

-주체를 명확히 꾸리고 빠른 시일내에 찾아가서 서로의 계획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자.

-당면한 경제특구법의 시행과 관련해 여성노동자들의 피해에 관한 학습을 진행하자
-해당지역에서 투쟁이 벌어지는 사업장이 있다면 결합하자

도움글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특구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OECD국가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존 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무급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확정된 상태이다. 아직 주5일제 근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얼마 안되는 여성보호조치인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휴무급화를 담고 있는 것이다. 법안이 지니는 휴일관련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하여 초과노동이 반복되어 심각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연대단위
경상대: 진주여성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농, 들꽃어린이집
창원대: YMCA
동아대: 사하여성회, 산청농민회 여성위원회
울산대: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 전화, 효성성폭력대책위

(2) 대중의식화사업

#주체를 세우자.
주체가 1주나 2주 정도의 의식화 계획을 제출하고 모두 함께 선전하자
일상의식화는 전여대협에서 제출하는 유인물과 뉴스레터를 적극활용하자

#인터넷 의식화사업을 잘하자
인터넷 사업의 중요성은 말로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다. 부산대의 경우 총여학생회의 홈페이지가 학우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학생들에게 이슈를 던져주는 경우가 많다. 학우들의 의식지형을 잘 파악하고, 학우들과 소통하는 학생회, 학우들에 근간한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사업은 필수적이다. 주체를 세우자
그리고 전여대협 사이트 안에 있는 지역여대협 방을 활용하여 통신으로 빠르게 학교 상황들을 총화하고, 모범사례를 취합하자!

▷방도
-학교 자게, 과학생회, 동아리 홈피등을 장악하자
-홈피 제작 및 관리를 진행하자.
-학우들의 메일주소를 수집하여 따로 저장해두고 매 사업과 투쟁시 보내자.(메일터치)
-각종 다양한 설문사업을 진행하자
(창원대의 경우 과학생회장님들을 중심으로 과여부에 대한 의견들을 접수하고 있다.)

Ⅳ. 새내기 사업
1. 총여에서 따로 예비대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2. 단대 예비대학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1의 경우에는 단대별 예비대학을 진행하기 전에 총여학생회에서 먼저 여자합격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여 학교나 다른 곳에 장소를 잡아서 새내기 여학우 예비학교의 형식으로 모으는 것이다.
대학생이 되면서 처음 하는 행사라 여학우들의 관심이 높으며, 잘 진행될 경우 단대 선배들의 인식전환과 새내기들이 고스란히 총여학생회의 조직적 성과로 남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소모임으로 묶는 경우가 많다.
하루나 1박 2일 정도로 진행할 수 있고, 기본 하루 일정은 여성문제에 관한 강연과, 영상, 대동놀이, 뒷풀이등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 3월에 하는 것은 시기상 무리가 있고, 한다면 2월 중순에 하는 것이 좋다.

2의 경우에는 모든 단과대별 예비대학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오는 것 보다는, 몇 개의 핵심단대와 핵심과를 선정하여 구체적 새내기 조직화의 성과를 남길 수 있는 방향이 실효성 있다.

Ⅴ. 총노선 수립사업(☆☆☆)
총노선 수립은 단위 학생회가 1년동안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어떤 성과를 남기며 어디까지 사업할 것인지를 명시해놓은 것으로 학교 여학생운동에 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그릴 수 있다.
총노선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별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거창할 것 없이 우리 단위 상황에 맞게 1년의 목표를 세워놓는다고 생각하자!

▷총노선 수립의 경로와 과정
1/ 총여학생회에 대한 의견수렴
2/ 총노선 수립사업 계획과 일정에 관한 공유와 합의
3/ 총여학생회 세부적 평가사업 진행
4/ 영역별 학습 진행(소모임이나 과여부, 학칙에 관한 전망논의를 하면서 이론문서를 학습해야만 한다.)
5/ 영역별 토론과 정리(선거정책과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것인가, 국별 사업계획, 월별 시기별 핵심사업, 조직 사상운동 계획 등등)
6/ 총여 대의체계에서 확정
7/ 일꾼들, 학우들과의 대중적인 공유

Ⅵ. 핵심사업
▷대학별 수련회
-과여부와 과장과의 친밀한 만남을 진행하고 조직화하는 장이다. 많은 준비를 하자.
-주요 내용은 일꾼들과 함께 하는 강연형식이나 아니면 정치연설 형식도 괜찮을 것 같다. 혁명적 연애관에 관한 토론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좋겠다.
-그럴 시간이 보장이 안된다면 수련회 규율을 얘기하면서 일꾼내 성폭력을 근절시킬수 있는 규율을 넣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몇 명이라도 여학부장들을 총여에서 직접 조직화하였으면 좋겠다. 그 공간에서 친해지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동아대의 경우 갈래별 모임에서 여학부모임을 진행할 것이고, 전체 일꾼 대상으로 감동적인 비디오를 상영한다음 함께 얘기해볼 예정이다.)
▷여학일꾼 LT
-여학일꾼들과의 단합을 위해서 꼭 진행하자

▷전여대협 수련회(1월 20~22일)
-평가 전망 사업 준비를 잘 해와서 많이 얻어갈 수 있게 하자

▷총노선 수립 사업
-대학의 상황과 실제 목표에 맞게 실효성있게 수립하자.